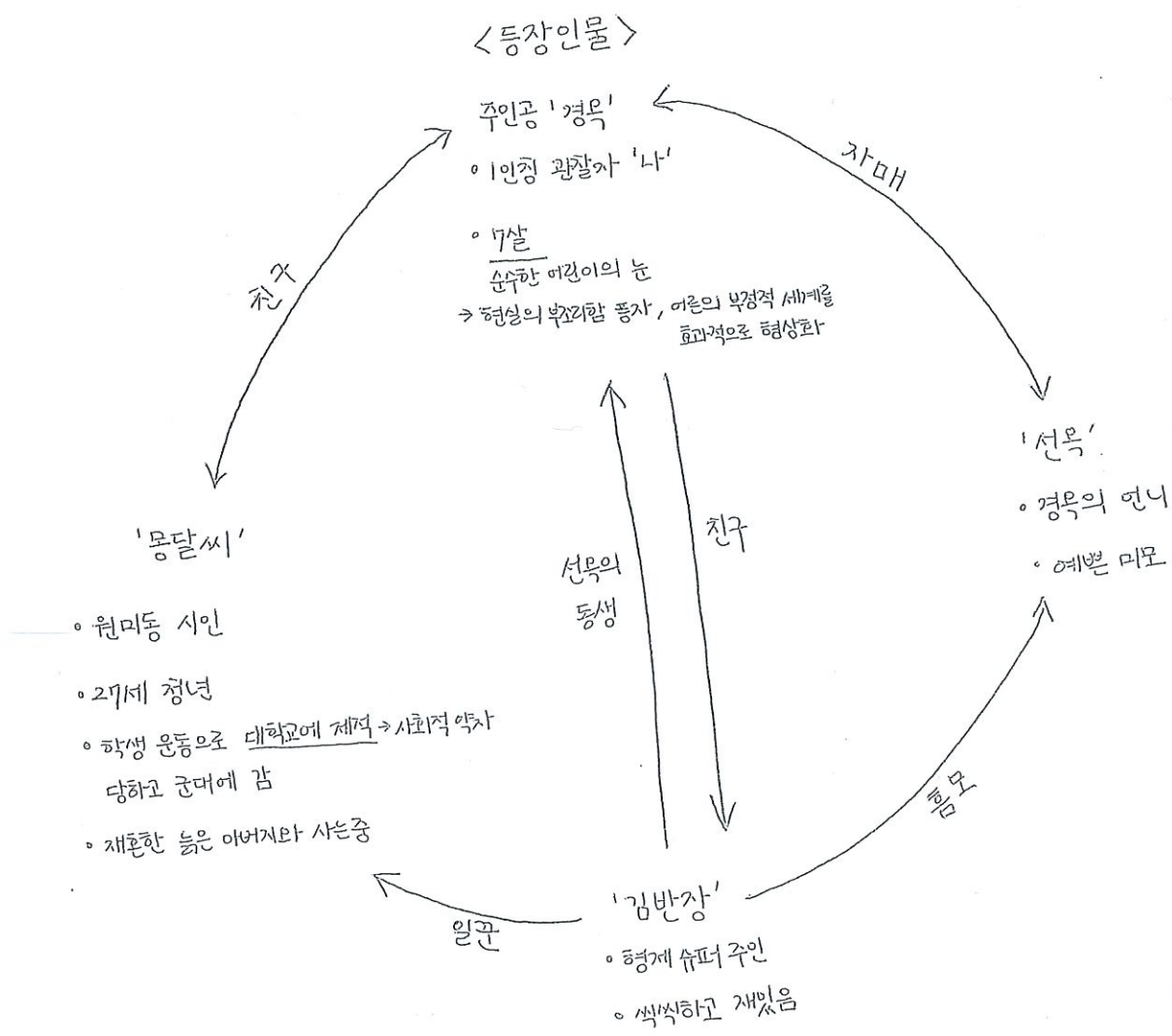


시간 : 1980년대 - 군사 독재 사회
 배경 : 부천시 원미동
 서울 외곽의 도시 개발 실험지
 → 당대 사회의 모습과 부조리의 공간적 의미

원미동시인

©3210 설예원



< 줄거리 >

- 1) 7살인 '나'는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마을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몽달씨의 아들을 낳기 위해 가진 다섯째 → 또래보다 성숙, 소극, 구박받으며 컸음 출신이고 비움. 자신의 언니를 좋아하는 김반장과 친구로 지냄.
- 2) '나'는 몽달씨보다 짝짝바 따위를 주는 김반장이 더 좋았음.
- 3) 어느날 밤, 불양배들에 쫓기다가 형제 슈퍼로 들어간 몽달씨를 차갑게 쫓아내는 김반장을 목격함.
- 4) 몽달씨는 결국 폭행을 당하다가 지들포 주사의 도움으로 삼 → 뒤늦게 김반장이 나타나 몽달씨를 부족해줌. ⇒ 비겁하고 이기적인 소시민적 태도
- 5) 그 광경을 본 '나'는 김반장과 절교를 결심함.
- 6) 결혼 후, 몽달씨는 아주렁지 않게 나와 김반장 일을 도와줌.
- 7) 이를 본 '나'는 답답해져 몽달씨에게 그 날길을 본 사실을 털어놓으며 김반장을 탓함.
- 8) 몽달씨는 대답을 하지 않고 은사시나무에 대한 시판 읊어댔. → 바보같은 몽달씨...
 - 바보 : 시련, 시대적 폭력의 상징
 - 은사시나무 = 몽달씨
 - 배해받고 읊어대는 순교자 : 사람들의 폭력과 소외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려는 몽달씨

인간의 소시민적 권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인간)에 대한 향유

「원미동 시인」 - 양귀자

갈래: 단편, 연작소설.

성격: 사실적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배경: 시간적 배경 - 1980년대

공간적 배경 - 경기도 부천시 원미동

소재: 보통 사람들의 일상생활

주제: 소시민들의 일상의 삶과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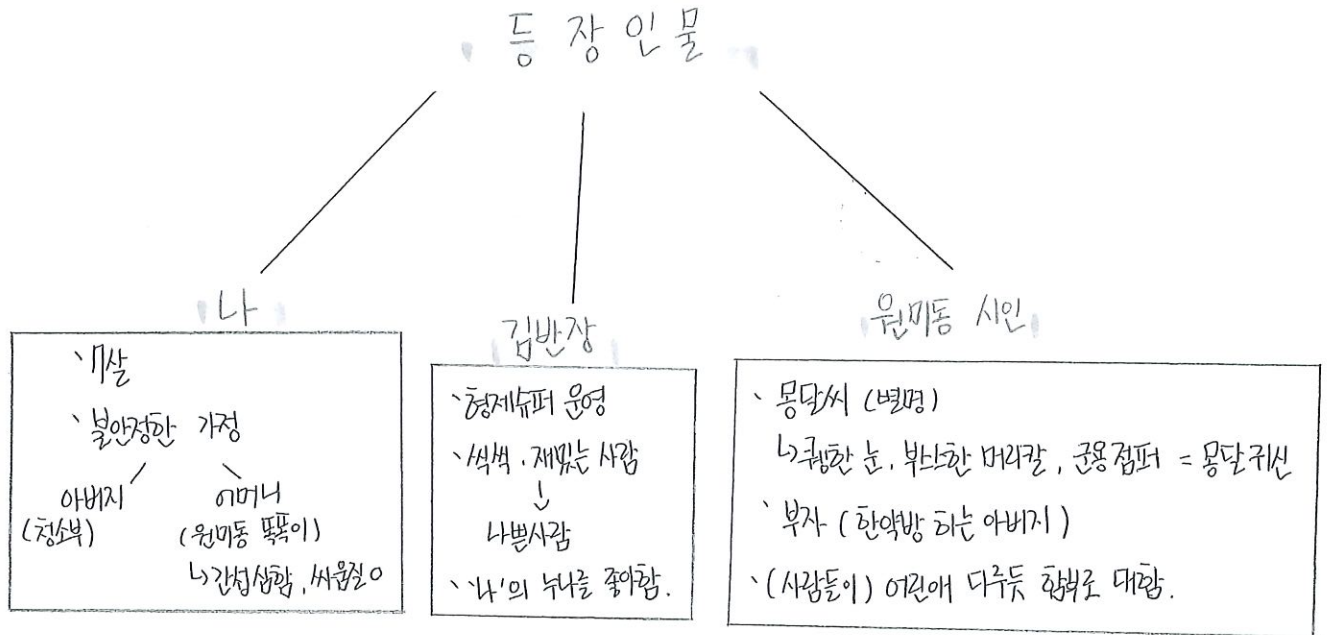
특징: 원미동이라는 공간을 통해 소시민들이 살아내고 있는 공간을 상징,
 이유없이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이웃들이 방관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습을 나타냄.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 어진아이 서술자

·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 역할

· 어른들의 세계가 지닌 부조리함, 모순 폭로 기능.



줄거리

· '나'가 영마아바 뒤편서움 때문에 김 밖으로 나와서 형제슈퍼 김반장네로 감.

↓

· 형제슈퍼에서 몽당씨와 친해감 / 김반장은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이다.

↓

· 어느날 몽당씨가 불쌍배한테 쫓겨 형제슈퍼로 감. but 김반장이 의면함.

· 하지만 몽당씨는 몇몇점 지나 형제슈퍼로 가서 일 도와줌.

↓

· 이 모든 정황을 '나'가 봄. 이후 '나'는 김반장을 나쁜사람이라 함.

↓

· 몽당씨가 '나'에게 잘못을 돌림.

↓

· 몽당씨는 다 알고 있었지만 배보장이 못처 함.

원미동 시인_ 양귀자

시간적 배경 : 1980년대

원미동 시인 - <원미동 사람들> 연작 중 하나

공간적 배경 : 원미동

작가 : 양귀자 - 작품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보통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린다. (-> 소시민)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과 애정의 시선으로 보고있다.

<등장인물>

나 - 세상 물정을 훤히 아는 것으로 자부하는 7살 소녀, 작품의 화자

- 몽달 씨가 놀림과 이용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함.
- 순수함을 지니며 조숙함으로 동네 사람들의 소시민적 모습을 비판하고, 폭로함.

김 반장 - 소시민적 근성을 보여주는 전형적 인물

- 이기적 존재 (자신의 이익과 안위 중요)

몽달 씨 - 맑고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

= 원미동시인

- 김반장을 미워하지 않고 보듬어 주는 존재

나 이기적인 사랑

<소설 전체 줄거리>

올해로 7살인 '나'는 집안 사정과 동네 사정을 알고 있는 조숙한 아이이다. '나'는 선옥이 언니를 좋아하여 '나'에게 잘해주는 형제 슈퍼 주인인 김 반장과 동네에서 바보 취급을 받는 몽달 씨와 친구이다. 김 반장은 몽달 씨를 일꾼처럼 부려 먹는다. 어느 날 '나'는 부모님의 부부 싸움을 피해 형제 슈퍼 앞에 앉아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겨 형제 슈퍼에 들어온 몽달 씨를 보게되고,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 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 씨를 쫓아낸다. 그러다 몽달 씨는 지물포 주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고, 불량배들이 도망가고 난 후에야 김 반장은 몽달 씨를 부축해준다. '나'는 그런 김 반장의 비겁함에 절교를 결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김 반장의 가게에서 그를 돕는 몽달 씨를 바보같다고 생각한다.

<작품 속 포인트>

1. **어린이 서술자** : 순수한 시선 -> 어른들의 세계 제한적으로 인식 -> 폭로, 비판
2. '나'의 태도 변화 (about. 김 반장)

씩씩하고 재밌는 사람 -> **그날 밤** -> 나쁜 사람

3. **몽달 씨** = 은사시나무

불량배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상환소에 권유되기도 외면 당함. 그 상황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임 = 막해받는 수교자

원미동

: 실제로 작가가 살았던 곳으로

산림욕장 조성되면서 좀 더 나은

삶 살기 위해 옮겼던 곳

다시, 경제사 어려움으로 밀려났고,

1980년대 한국 사회의 여러문제를 양극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공간,

희망을 포기하지 X 살아가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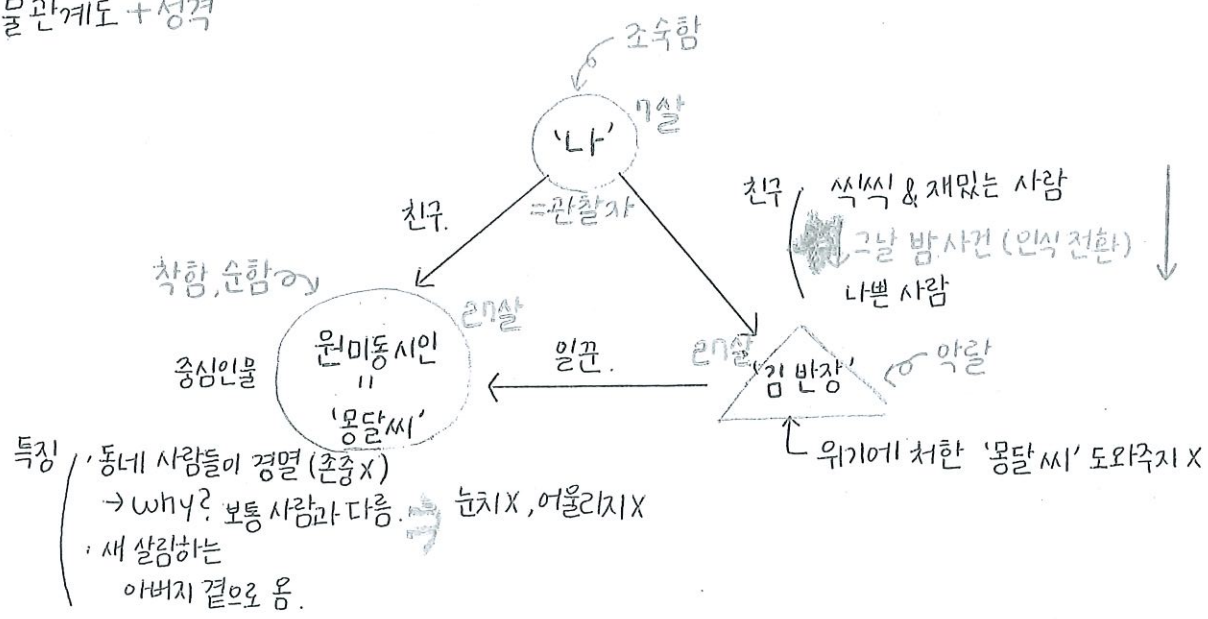
평범한 사람들 이야기 공간

5P. 원미동 시인

시·공간적 배경 { 시: 1980년대 여름 }
 { 공: 부천시 원미동 }

주제: 도시민들의 일상적 삶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인물관계도 + 성격



줄거리: 올해 7살인 '나'는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조숙한 소녀이다

+ '나'에게는 조금 모자란 11살 '몽달 씨'와 11살 형제 슈퍼를 운영 중인 '김 형제'라는 두 친구가
 중심사건 있다. 엄마 아버지의 부부싸움을 피하기 위해 형제 슈퍼로 나와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몽달 씨'가 아무런 이유없이 불량배에게 쫓겨 형제 슈퍼로 들어와 '김 반장'에게 도움을 청한다.
 하지만 끝내 '김 반장'이 외면해 결국엔 '주씨 아저씨'가 불량배로 부터 '몽달 씨'를 구해준다.
 그제서야 '김 반장'이 나타나 그를 위해주는 척 한다. 따라서 '나'는 '김 반장'을 나쁜 사람으로
 여겼지만 몇일 지나고서야 나타난 '몽달 씨'는 여전처럼 '김 반장'을 도와준다.

★ 강조하고 싶은 부분: '슬픈 시'

⇒ '몽달 씨'가 '김 반장'이 자신에게 한 일 다 알고
 But '몽달 씨' 도와줌 → '김 반장'
 ⇒ 은사지 나뉘 = '몽달 씨'

「원미동 시인」 양커자

© 3616 정서영

→ 갈래: 잔편소설, 세제소설, 풍자소설, 연작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 배경: 1980년대 여름, 부산시 원미동

→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

→ 주제: 소년의 일상적 삶과 인간다운 삶에 대한 향수

→ 특징 ① '원미동'이라는 소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통해 일상적 삶을 다루고 있음

② 아무것도 한 개인이 당해야 하는 폭력과 맞선 방관자적인 태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모순을 드러냄

③ 어린이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객관적 시선을 확보하여 풍자적 효과를 줌

동자와 자본가의 중간 계급인 소상인, 수공업자, 하급 봉급 생활자, 하급 공무원 자질을 동등히 이르는 말로, 높은 계층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어린이 서술자의 특징

❁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 어른들의 세계에 대한 관찰자의 역할

❁ 순한 시선 → 어른들의 세계를 제한적으로 인식

❁ 어린이답게 않은 조숙함 → 뛰어난 사회분별력

어른들의 세계가
자신 부끄러움이나 모순
폭로

발단

7살인 '나는'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조숙한 아이임.

전개

포레와 어울려 놀 땀뻘이 못 났어 '나는' '원미동 시인'이라 불리는 '몽달 씨와 형제 수퍼' 주연인 '김 반장'과 친구로 지냄.

위기

부엌의 부부 싸움을 피해 형제 수퍼 앞에 앉아 있다가 불량배들에게 쫓길 몽달 씨를 외면하는 김 반장과 불량배들에게 폭행당하는 몽달 씨를 보게 됨.

절정

저물포 아저씨의 등장으로 불량배들이 도망치고, 그제서야 김반장은 몽달 씨를 챙김.

결말

'나는' 김 반장의 비겁함에 절망을 걸심하고, 아무렇게도 않게 김반장의 차폐를 돕는 몽달 씨를 배반 같다고 생각한다.



• 원미동에 이사하여 사는 일곱 살 소녀.
• 형제 수퍼 김 반장, 원미동 시인과 친구.
• 소년들의 삶의 풍경을 관찰하는 인물.
• '그날밤'을 계기로 '김 반장'에 대한 평가를 내려함.



• 원미동 5반 반장이며 형제 수퍼 주연.
• '나'의 인내인 선옥에게 미련을 둔 스물일곱 살의 이기적인 소년들의 전형적인 인물.
• 자신의 이익과 안거 중시.



• 몽달 씨라는 별명을 지닌 스물일곱 살의 청년.
• 천진스러움이 광기를 받고 폭력을 당하는 데 대한 반응적인 울분을 토하는 인물

김 반장에 대한 '나'의 평가

누군가 선택하고
제거하는 사람

그날밤

나쁜 사람

몽달 씨가 아저씨 불량배들에게 쫓겨 김 반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김반장은 자신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 몽달 씨를 미들케게 쫓아내고 몽달 씨가 폭행을 당하고 산 후에야 몽달 씨를 챙김

이기적이고 비겁한
* 소년들의 삶